

■ 한국특허정보원(KIPI),
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 수상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 www.kipi.or.kr)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한 2006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6월 20일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6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해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에서 이번에 대상으로 격상되어, 특허정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고객중심의 서비스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전반에 서비스품질혁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객최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2004년 「2004 한국경영품질대상」 수상과 국제적 품질기준인 「ISO 9001」을 인증받았으며, 지난해에는 「2005 한국서비스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산업자원부 주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등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서비스대상 수상자는 각 기업별로 7개 범주에 대해 심사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선정했다.

7개 범주는 리더십, 전략, 고객만족(중시), 정보와 지식, 인적자원, 프로세스, 경영성과다. 이 평가기준은 미국 MB상(Malcom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의 기준을 기본으로, 국내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표준협회 시상제도위원회가 정한 것이다.

1,000점 만점에 700점(중소기업은 650점) 이상을 받으면 대상을, 600점(중소기업 550점) 이상이면 부문대상, 500점(중소기업 450점) 이상을 받으면 최우수상을 준다.



특허청장 초청 변화관리특강 개최



전 직원의 의식 변화 마인드 수립 및 한국특허정보원 혁신 활동 강화 및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자기 관리를 통한 새로운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변화관리특강이 지난 6월 5일 16시에 개최됐다. 한국특허정보원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변화관리특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3번째로 열렸다.

전상우 특허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시된 이번 변화관리특강에서 전 청장은 '우리나라 특허정책 추진방향과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국특허정보원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치열한 특허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부단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밝히고, "한국특허정보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원 개개인의 혁신적 마인드를 수립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 복지시설 방문 의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천호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명진보육원'을 방문, 생활용품을 기증하고 내부 청소 및 보육시설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국특허정보원 사회봉사단은 다음날인 6월 29일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탄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탄천 주변 오물수거 및 유해식물 제거활동에 참가한 조사분석4팀 이태석 사원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일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환경경영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라며, "보람되고 뿌듯한 봉사활동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로부터 정기적인 단체 헌혈활동에 따른 감사의 뜻을 표한 감사



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특허정보원 회의실에서 서울남부혈액원 민병대 원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며, "한국특허정보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참여해 주어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감사패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다양한 특허분야 용어와 법률용어 집대성한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 출간



한국특허정보원은 다양한 특허분야 용어와 법률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을 최근 출간하고 보급에 들어갔다.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은 한국특허정보원이 지난 2002년 「논점별 특허판례」, 「특허맵 작성 실무가이드 - 기초에서 활용까지」 발간 이후 만 4년 만

에 출간한 것이다.

그동안 특허분야에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용어들을 포함한 법률용어 영한사전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의 특허분쟁에서 다소 용어의 혼란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글로벌 특허경쟁시대에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법 용어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에 출간된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은 편저자가 미국 유학시절,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면서,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Patent Law and Practice(Herbert F. Schwartz)”를 번역하면서 부딪히는 특허법률 용어들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본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의 편저자인 안대진은 한양대 전기공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적재산권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에서 수학하고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컴퓨터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자심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글로벌 특허경쟁시대에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용어집인 『특허법률용어 영한사전』은 국제특허시대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지침서인 동시에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빠르고 쉬운 이해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02-3452-8144(162)

한국특허정보원, 포항테크노파크/포항공대 지적재산권 조사분석 관련 업무협약 -포항지역 산학(産學) 특허지원체계 구축-



포항 지역 내 산학(産學)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5월 17일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李成宰 : www.pohangtp.org) 및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朴贊謨 : www.postech.ac.kr)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날 오후 1시 포항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유대증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의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의 온·오프라인 공유 ▶지역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양성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기타 지역의 지적재산권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실에서 한국특허정보원과 포항공과대학교 간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특허정보활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선행기술조사의 제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동향 조사분석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정보 상호교류, ▶특허정보, 특허분쟁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워크샵 실시, ▶기술기획·평가 전문가, 특허분석 전문가 Pool 상호 활용 추진, ▶특허출원지원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번 두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지원방안을 공동으로 수립·지원함으로써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학권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두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포항지역 기업과 대학 내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지역산업발전 및 특허정보활용 확산에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 특허청 관계자 및 영국 TS사 관계자 등, KIPI 방문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외국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특허정보원을 방문하는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가 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J. A. O. Velazco 파라과이 산업부 차관보 일행이 한국특허정보원을 방문, 우리나라의 선진 특허정보보급체계에 대한 현황을 듣고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파라과이 대표단 일행은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 특허정보조사분석서비스 및 기타 특허청 행정지원 업무 등에 대한 소개를 듣고 한국과 파라과이와의 관계 증진을 기대했다.

벨라즈코 차관보는 “지재권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 및 KIPI는 파라과이의 모델이며, 파라과이 특허청은 현재 KIPI와 같이 특허청의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계획 중으로 이에 KIPI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KIPI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이에 따라 저개발 국가 특허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세계적인 정보서비스 기관인 Thomson Scientific사 관계자 일행이 지난 6월 8일 양 기관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을 방문했다.

Thomson Scientific사의 Robe Willows 부사장 등 총 3명은 한국의 특허정보보급의 현황과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 등을 소

개받고, Thomson Scientific사의 현황과 양 기관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또 지난 5월 11일에는 한경대학교 법학과(지식재산권 전공) 학생 20여 명이 특허정보 보급 체계에 대한 현황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소개를 받고 특허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

한국특허정보원(KIPI), 네이버(NAVER) 통해 국내 최고 지식재산정보 제공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5월부터 NHN의 No.1 검색포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난 해 KIPRIS 특허정보서비스를 네이버에서도 검색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휴를 맺은데 이어 올해 3월, 특허관련 지식폰서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지식 파트너로서 특허통계/분석/동향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기로 NHN과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5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각종 정부사업 및 국가 R&D 연구 지원활동을 수행한 특허전문가들이 일반 네티즌에게 분야별 지재권 관련 문의에 답변하고, 기계/화학/전기전자/컴퓨터통신 등의 기술 전체 분야에 대한 특허/상표 등의 연구/동향 보고서를 제공한다.

한국특허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용자들은 앞으로 네이버를 통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전 분야에 대한 보다 손쉬운 접근과 본인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보다 높은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과이측 인사 방문>



<TS 관계자 일행>



<한경대 학생방문>



특허검색 프로그램을 무료로 설치하세요
- 특허청,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개시 -



연구개발자들이 자기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좀 더 편리하게 특허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고객감동 행정실현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의 특허검색서비스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란 특허검색을 희망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특허검색창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특허를 검색할 경우, KIPRIS에서 검색된 검색결과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결·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로 인해 사용자들은 마치 자기 기관이 자체 특허검색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편리하게 특허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단순 링크 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고객지향적인 새로운 정보공유 서비스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민간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동 서비스를 시범실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6월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연구소·대학 등 연구개발의 주체들은 특허정보 자체 DB구축 시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기술 정보를 내부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정보 이용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특허정보의 이용자도 증가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특허정보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개인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서비스지향기반의 웹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특허검색서비스”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특허청 정보기획팀 및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운영팀에 신청하면 된다.

국내·외 특허선행기술조사서비스(FORX), 해외에서 관심 고조

국내·외 특허의 선행기술 유무를 조사, 분석하는 선행기술조사서비스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선행기술에 대한 해외에서의 조사, 분석 문의나 의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해외에서의 문의나 의뢰는 과거 단지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 독일,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선진 국가에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선행기술조사서비스(FORX)에 대한 해외에서의 조사 의뢰는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하였으며, 조사절차나 방법을 문의하는 기관(업체) 또한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행기술조사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맵(PM: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한 특허지도)을 통해 한국의 기술개발동향 및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에서의 분석의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행기술조사란 연구기획단계, 기술개발단계, 기술의 출원 전 등에서 특허의 확고한 권리획득을 위해 기 출원·등록된 기술의 유무 및 권리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특허강국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기술정보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정보서비스 해외마케팅 극대화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기존 영문(eng.forx.org)에 이어 일본(jp.forx.org), 중문(cn.forx.org)으로 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에 오픈한 다국어 홈페이지는 해외고객을 위한 기초적인 고객만족체제를 실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양질의 한국 특허정보서비스로 세계적인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